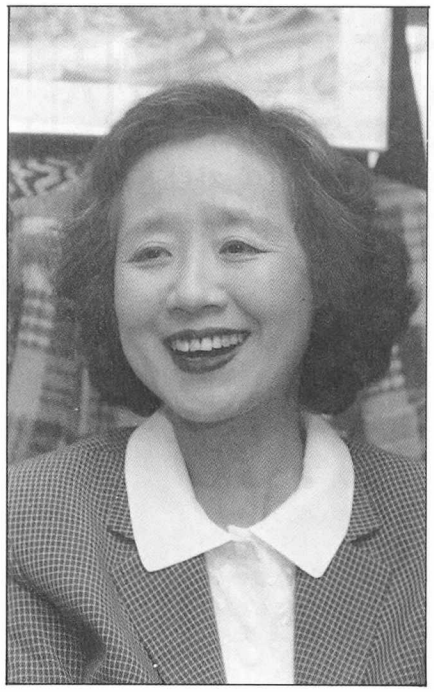


과거를 통해 현재를 지켜본 인생철학

《역사에세이》 펴낸 정옥자 교수

"역사는 골동품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된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읽어내는 작업입니다."

최근 수필집 《역사에세이》(문이당)를 펴낸 정옥자 교수(54, 서울대 국사학과)는 역사도 결국 구체적인 삶의 문제라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 즉 역사란 그저 실증적이고 기계적인 학문의 한 분야가 아니라 현재에 적용되는 '메시지'로서 의미가 더 크다는 말이다.

정교수는 원래 문학 지망생이었다. 고교시절 여러 백일장에서 입상하기도 했고 밤을 새워 소설을 읽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러던 중 문학을 하려면 학문적 토양을 닦는 일이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사학과에 입학했고, 학문의 분류방식이나 기술방식이 서구화되어 사마천의 《사기》(史記)처럼 문학의 범주와 가까운 역사는 이미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채 대학 문을 나섰다.

"대학을 졸업하고 가정주부로 10년을 보낸 후 다시 학문을 시작했습니다. 사상사·지성사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觀)이 섰고 사실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정교수의 이번 책은 정치·사회·생활·문화·환경·경제·교육 등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한 글들이 실려 있다. 정교수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역사를 통해 현대를 해석하는 탁월한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순탄하지 않게 학문의 길을 걸었던 삶과 무관하지 않다.

"체(體)를 세워야 용(用)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인생철학도 바로 그런 경험에서 비롯한다.

"이 책은 내 전공인 조선후기 사상사의 알맹이들을 현실문제에 대입시켜 써내려간 것들입니다. 특히 세계화를 외치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저력과 응집력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글들이 많습니다."

외세에 의해 훼손되기 이전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정교수의 확신과 신념은 70여편의 짧은 글 곳곳에 짙게 배어 있다. 현실의 문제와 학자의 정체성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화두처럼 안고 살아가는 정교수는 이 책에서 끊임없이 '역사 바로세우기'를 강조한다. 그가 이처럼 역사를 '현실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의 말대로 학문은 결코 귀족놀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2남1녀의 어머니이자 은퇴 후에는 역사소설을 써보고 싶어하는 역사학자인 정교수의 책에는 옛 지식인들 처럼 시(詩)·서(書)·화(畵)를 교양으로 닦지는 못했을 망정 문(文)·사(史)·철(哲)만은 겸수하고 싶었던 그의 소망이 명징하게 담겨 있다.

——허 연 기자

지식인이 그려낸 격동기의 우리 사회

교육, 학문, 사회에 관한 세 권의 책 펴낸 이인호 대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사'라는 기록을 세운 이인호 대사(61)는 핀란드로 떠나면서 한꺼번에 세 권의 책을 출간했다. 정우사에서 펴낸 《풍요로운 사회 가난한 학교》《민주화의 다음 단계 교차하는 희망과 불안》《푸슈킨이 살아 있는 나라 러시아는 어떤 이웃인가》가 그것. 이인호 대사는 이 책들의 의미를 담담히 전한다.

"내놓고 보니 올해가 20년 동안 몸 담았던 학교를 떠나 대사로 나온 해면서 회갑을 맞는 해더군요."

《풍요로운 사회 가난한 학교》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갖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있다. 또한 현실적인 교육개혁의 대안까지 내놓고 있어 교직자로서뿐 아니라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느끼게 한다.

"대사직을 맡은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외교라는 실무를 통해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요."

이런 생각에서 이인호 대사의 관심은 몸 담았던 교육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로 뻗어나간다. 《민주화의 다음 단계 교차하는 희망과 불안》은 현미경과 같은 섬세한 시각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들여다봄으로써 사회 저변의 비민주적 요소들을 꼬집고 역사의식 없이 개혁만을 능사로 삼는 위정자들에게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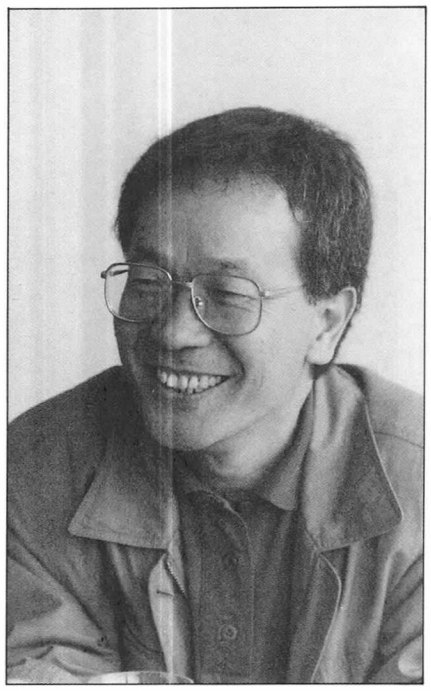
"교수가 신문칼럼을 많이 쓰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이 뒤죽박죽하던 그때는 나는 뭔가, 교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싶어서 내 목소리라도 내지 않으면 못 견디겠더군요."

40년을 학교 주변에서 보냈던 그에게 요즘 달고 있는 대사라는 직함은 얼마간 낯설다. 그렇지만 이제 꼭 두달째로 접어든 대사 생활은 여러 모로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공부했던 러시아사가 핀란드나 에스토니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대사직 수행에 도움을 주는 점도 흐뭇하고 여러나라의 대사들을 만나 그동안 배우고 가르쳤던 역사학을 새로 배우고 있는 것도 즐겁다.

"이번에 러시아에 대해서 책을 쓰긴 했지만, 대개가 소련이 무너지고 난 뒤 러시아에 대해 피상적인 논의가 난무하는 데 전공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때그때 쓴 것이라 부족함이 많습니 다."

이인호 대사는 그런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책을 쓰려고 한다. 그동안 러시아와 유럽 전반에 관해 배우고 닦은 것을 엄격하게 학문적으로 다듬어서 두툼한 입문서를 하나 만들고 싶다. 물론 아직 멀기만 한 일이다. 지금 당장은 핀란드 대사직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이 최우선. 그를 통해 핀란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아 여성, 인문계 학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데 한몫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이현주 기자



웃음과 눈물이 담긴 글쓰기

《동화로 엮어가는 쉬운 글쓰기》 펴낸 김병규 씨

현직 기자이면서 동화작가인 김병규(48, 소년한국일보 기자)씨가 펴낸 《동화로 엮어가는 쉬운 글쓰기》(다섯수레)는 여느 글쓰기 지도서와 다른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글한이'와 '글샘이' 남매. 가정과 학교를 무대로 한 동화 42편을 통해 어린이들이 어렵게만 여기는 글쓰기가 사실은 쉬운 일임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1993년부터 소년한국일보에 〈동화로 엮어가는 바른 독서 쉬운 글짓기〉라는 이름으로 연재한 것을 책으로 묶었다. 연재하는 동안 자녀와 함께 읽는다는 어머니의 전화나 조회 때 신문기사를 들려준다는 교장 선생님까지 있을 정도로 호응이 많았다.

"이 책은 제 인생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한가지 경험이 빠졌더라도 그런 모습을 갖지는 않았겠지요."

김병규씨는 대구교대를 졸업하고 1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어린이들을 가르쳤다. 그러다가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된 것을 계기로 신문사로 직장을 옮겼다. 이제는 신문기자의 연륜이 교사경력을 웃돈다. 이 책에는 교실에서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고, 동화를 쓰고, 신문사에 들어오는 어린이의 글을 많이 접한 경험이 한데 녹아 있다.

"글쓰기보다 말하기가 더 어렵지요. 이 책은 그런 사실을 일깨우고, 글쓰기의 유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당의정'인 셈입니다." 동화형식을 차용한 데 대한 설명이다.

그 일에 종사한 햇수로나 당사자가 생각하는 비중면에서나 동화작가가 김병규씨와 참모습이다. 문단에 나온 이후 펴낸 창작동화집이 십여권.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작품세계를 지향하여 문학상 심사위원들에게 주목을 받곤 했다.

지난해 연말에도 《아침에 부르는 자장가》(중앙일보사)를 출간하며 식지 않은 창작의욕을 과시한 바 있다. 고향에서 들은 이야기를 소재로 한 이 장편동화는 치매증상의 할머니와 효성 지극한 아들 내외의 이야기이다. 치매를 동심과 동열에 놓고 펼친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준다.

"진실을 써야 하지요. 우리 어린이들은 진실을 어떤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겪고 내가 아는 이야기가 바로 진실이지요. 특별한 것이나 남이 못본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쓰면 감동을 주는 글이 된다고 김병규씨는 덧붙인다. 감동 역시 뭉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웃음·눈물·놀람·화냄이 모두 감동의 양상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을 통해 어린이들이 글쓰기가 쉽고 재미있는 일이라는 느낌만 가져도 책의 의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김병규씨는 올가을 안에 동화로 엮은 글쓰기 안내서 두권과 한권의 창작동화집을 펴낼 예정이다.

——최성일 기자

모여 "책"을 만들고 함께 "미래"를 열어갑니다

생각해보면 전문직의 세계는 작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편집 취재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바늘구멍에는 실이 들어갑니다.
그 실은 낙타보다 작고 가늘지라도
훨씬 더 길고 질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전문직의 세계는 작고 좁을지라도
그 생명력은 길고 오래갑니다.
서울편집디자인스쿨에는 전문직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 소신을 갖고
평생 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떠한 일에도 부러지지 않을 사람,
마지막에 참 잘했다고 웃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서울편집디자인스쿨에 모여
책을 만들고,
함께 21세기를 열어갑니다.

정규과정	주말 정규과정	DTP 특강과정	취재 전문반
정규과정 교육기간:5개월 (정규교육 3개월, 컴퓨터편집 2개월) 오전반 10:00-13:00 오후반 14:00-17:00 야간반 19:00-22:00 각반정원:30명 강의요일:월·화·목·금	주말 정규과정 교육기간:5개월 강의시간 토요일 15:00-21:00 일요일 10:00-16:00 각반정원:20명 교육과정 정규반과 동일	DTP 특강과정 교육기간:8주 강의시간:19:00-22:00 각반정원:20명 강의요일 주5일(월~금) 교육과정 Illustrator · Photoshop 전문과정 개설	취재 전문반 교육기간 : 여름 · 겨울 방학 강의시간 오전반 10:00-13:00 오후반 19:00-22:00 각반정원:20명 강의요일 주5일(월~금)

취 업 처 : 신문사, 잡지사, 기업체홍보부 및 사보기획실, 단행본, 출판사, 학습지, 편집대행사, 협회 등

국내 최초 최대의 편집 교육기관
한국 출판학회추천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매체협회지정교육기관

서울편집디자인스쿨

문의(代) 672-1841,2 FAX 637-0441
자동응답전화 704-4450(100*)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출구방향 100m